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장 석 주
시인

앙리 루소의 '잠든 집시'(1897)란 그림을 좋아한다. 화면 오른쪽 상단 푸르스름한 밤의 창공에 하얀 달이 떠 있다. 지평선 아래 갈색의 대지에는 집시가 악기를 옆에 둔 채로 곤하게 잠들어 있다. 잠든 집시에게 수사자 한 마리가 다가온다. 이 기이한 환각 같은 집시의 꿈을 묘사한 단순한 구도의 그림에 내 무의식은 자극을 받는다.

"비가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녹음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김광섭, '비 개인 여름 아침')

이 맑고 깨끗한 여름 아침 우리가 살아 있다는 건 꿈이 아닐까? 꽃 피고 새 울며, 못 속에 금붕어가 노니는 이 평화로운 아침에 맞는 오늘이 우리가 꾸는 긴 꿈 중 일부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다.

우리는 자는 동안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꿈을 꾼다고 한다. 기억하는 꿈은 극히 작은 일부다. 깨어나기 직전에 꾼 꿈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수면 중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 꿈은 '그림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꿈은 뇌라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비이성이 지배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꿈은 논리나 맥락이 없는 이야기다. 무의식에 웅크려 있던 격정과 본능적 욕망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꿈의 재료는 낮 동안 활동할 때 겪은 경험들, 곧 '일화 기억'들(episodic memory)이다. 때때로 영혼에 숨은 무의식적 힘들이 생생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잠들지만 뇌는 잠들지 않는다. 우리가 잠에 빠진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 간다. 수면은 기억 중추 영역인 해마에 기억을 응고시켜 고착시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걸 '기억 굳힘'이라고 한다. 꿈은 수면 중 감각기관에서 온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해마는 낮에 수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신피질에 있는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꿈이란 현상이 파생한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꿈이 있으니, '장자' '제물편'에 나온다. '호접지몽'으로 널리 알려진 이 꿈에 따르면, 장주(莊周)는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 장주가 범나비로 변해 꽃 위를 날아다니는 꿈이다. 나비가 되어 꽃향기에 취한 장주는 즐겁고 행복했다. 장주는 불현듯 꿈에서 깨어난다. 장주는 한동안 자신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혹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장주는 꿈의 순간과 생시의 경계가 희미한 몽롱함 속에 머물렀다. 장주와 나비는 엄연히 다른데, 장주는 이 제의적 꿈을 통해 자아와 외물은 본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쓴다.

꿈의 태반은 개꿈이다. 하지만 특별한 꿈도 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꾸는 꿈이 태몽이다. 많은 이들이 태몽을 예지몽으로 받아들인다. 과연 꿈에 미래에 대한 예지력이 있을까? 조선 선비 정철(1536~1593)은 꿈의 예지력에 관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동야승'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인생에서 꿈과 현실이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신묘년의 꿈에 강계부사가 되더니 곧 강계로 귀양살이를 갔다. 위리안치 중에 아들이 장원 급제하는 꿈을 꾸었더니 얼마 안 되어 문과인 용방(龍榜)의 선발에 뽑혔다. 이렇듯 꿈과 현실이 부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이다.

요즘엔 돌아가신 지 오래인 어머니와 어린 시절 옛집이 등장하는 꿈을 자주 꾼다. 좋은 꿈도 나쁜 꿈도 아니다. 아침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요령부득의 꿈을 곱씹어 본다. 왜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꿈을 꾸는 것일까? 숙면 주기가 짧아진 탓에 더 많은 꿈을 기억하는 탓이다. 살기가 팍팍하고 괴로운 순간 이게 꿈이었으면 할 때도 있다. 그 반대로 달콤한 꿈을 꾸는 동안은 이게 생시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살다 보면 꿈이 생시 같고, 생시가 꿈 같은 찰나를 겪는다. 이상(李箱, 1910~1937)의 말대로,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인 게 인생이다. 우리는 꿈으로 또 다른 생을 얻는다.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수 없는 이면의 삶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종교칼럼

"거저 주어라"

황 성 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무상 원조'라는 말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었다. 6·25 전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산과 들은 물론 공공시설과 산업시설들이 모두 파괴되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6·25 전쟁이 끝나고 굶주림으로 힘들었던 우리에게 가장 큰 규모로 도움을 주었던 유엔 기구였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 아니 되돌려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대한민국의 쌀이 지구촌의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무상으로 받았으니 당연히 다시 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받았던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굶주림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나라들의 좋은 마음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필자가 10년 전 남미 칠레의 빈민가에 선교 사제로 가겠다고 청했을 때,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이셨던 대주교님께서 "그래 우리도 이제 받는 교회에서 돌려주는 가톨릭교회가 되어야지!"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마태오 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상으로 파견하시는 내용이다. 길 잃은 양들을 찾아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살려 주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명하신다.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에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회칙인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에서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무상성'이라는 주제로 마태오 복음 5장 45절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를 인용하신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며 그 생명은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이다. 이어서 교황은 "우리는 생명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신다. 교황은 '무상성'을 강조하시는데, 개인적 이득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에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난민과 같은 이방인들을 환대하기를 권고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서 어떤 것으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는 무상성으로 태어났고, 성장하고 살면서도 무상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존재! 우리가 지닌 무상성은 무시하고 천대받았던 이들이 남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이끈다. 이 인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며 밝은 미래로 인도할 것이다. 무상성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받아들임과 수용의 역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는 무상성'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경쟁은 '같은 목적에 대해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경쟁 사회 안에서 상대를 이겨야 자기 존재가 가능하다는 당위성이 주어진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이 떠오름과 동시에 뒤쳐진 이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 존재로서 수단화 될 뿐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예수의 말씀을 교황은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시대에 강조하고 있다. 다른 이들이 기꺼이 그리고 '무상으로' 환대하는 사회적·정치적 문화만이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는 것이 아까운 그 이유는 왜일까? 그 이유를 내 자신에게 물어보자.

기 고

농업 분야도 기후 위기 대응 절실하다

김 성 안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에 비추어 10년 뒤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생각해 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전 인류의 생존이 달린 크나큰 위기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바로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나서고 있다. 이는 인류의 미래에 있어 그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총회를 남해안·남중권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지지를 보내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2도 높았고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3년 중 한 해였다고 한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현재까지 기온 상승은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산업화 이후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된 것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뿐만 아니라 트랙터와 경운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이용할 때도 발생한다. 또한 젖소와 같은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발생한다. 이런 모습은 기후변화라는 큰 위기 앞에서 그 책임을 논할 때 농업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증거이다.

기온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큰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땅인 지구와 함께 농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다. 경유 등과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농기계를 전기 농기계로 대체하면 농작업을 수행하는 데 화석연료의 연소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게 된다.

둘째, 축산 기술의 변화이다. 가축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메탄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거나 대규모 사육 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대기 중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수 농업 연구의 확대이다. 해수 농업이란 해수를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다만 담수를 사용하던 기존의 농경지와 작물에 해수를 적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작물 생육 특성에 적합한 농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래 기후변화의 시작점은 남해안 지역이다. 따라서 그 준비도 필연적으로 남부 지방의 농경지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社 說

'또 인재'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人災〉

광주시 학동 주택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돼 승강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아홉 명이 숨진 대형 참사는 아직도 여전한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이번 참사는 건물 철거 현장의 허술한 안전 관리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였다. 사고는 그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 과정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통째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일어나 승객 등 1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이다.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의 감식과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정황상으로만 보더라도 인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재하도급은 없었고 공법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철거 업체가 허가받은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민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고층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부터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원청업체는 재하청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고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했던 만큼 이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재개발조합이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비상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사고 원인이 됐다. 현장에 감리자가 없다 보니 원칙대로 철거가 진행되는지 감시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 내로라 하는 굴지의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권한이라고 방치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의 강 건너 불구경식 관리 감독도 문제다. 광주시와 동구는 임시정류장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한 것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적극행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현장행정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으로 더 이상 '예고된 인재'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참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길이다.

이건희 컬렉션 광주·대구 공유 좋은 생각이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삼성가 예술품'을 광주와 대구의 상생과 문화자산 공유의 이정표로 삼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대구에 '달빛미술관'을 지어 영호남 지역이 함께 관리·전시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정부에 기증된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해 양 지역에 달빛 미술관을 건립해 전시하고 교환 전시회도 열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관광객 수요 창출 등 양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들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미 수도권에 미술관을 세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대구와 광주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에서도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어 달빛미술관은 상생 현안으로 손색이 없다.

게다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누적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문화 부문에서라도 해소하자는 취지여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얻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건희 컬렉션 유치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서고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탠다면 달빛미술관 유치는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無 等 鼓

가사 도우미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출근 시 애를 맡아 줄 사람이 있다면 천운이다. 흔히 친인척을 찾거나 그도 안 되면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게 보통이다.

가사 도우미는 아이를 돌봐 주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등 그 중요도만 놓고 보면 가족 구성원과 다를 바 없다. 도우미는 과거 식모로 불렸을 만큼 천시받거나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명칭도 70년대 말~90년대 초 가정부·파출부를 거쳐 2000년대 이후 가사 도우미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가사 노동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명칭이 '가사 근로자'로 변경되었다. 정부 인증 노동자의 경우 4대 보험 보장 등 근로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사 도우미는 50~60년대만 해도 '식모'(食母)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식모는 노비 해방이 이뤄진 1920년대 시기에, 가난한 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부잣집에 입주해 집안일을 하던 데서 생긴 직업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고아나 미망인이 늘면서 한층 일반화됐다.

식모살이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소설이 있다. 1963년 발간된 손창섭의 세태 소설 '인간교실'이다. 5·16 쿠데타로 실직자가 된 '주인갑'이 그의 두 번째 처와 전처 소생의 딸을 데리고 '보순이'로 불리는 식모와 함께 서울 흑석동 주택에서 살아가는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소설에는 이런 내용도 보인다. "8월 생활비/ 주식비 2000원, 부식비 3000원, 연료비(연탄) 350원, 가장 용돈 1500원, 주부 용돈 1500원, 의복비 1500원, 인건비(식모) 600원, 수도 전기 500원" 식모 '보순이'의 한 달 급여가 수도 전기세와 비슷하고, 주부 용돈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육아와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법률과 상관없이 가정생활을 도와주고 아이를 돌봐 주는 가사 근로자들을 편견 없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요구된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